

국내 대학도서관 웹사이트 메뉴구조와 용어 분석

A Study on the Menu Structure and Term of Academic Library Web Site

최 흥 식(Hung-Sik Choi)*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웹사이트 메뉴구조와 용어를 제안하는데 있다. 메뉴구조는 7가지의 웹사이트 메뉴패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용어는 빈도수에 의한 항목을 분석하였다. 메뉴구조의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2가지 이상의 메뉴구조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구조패턴은 <테이블>과 <프레임 + 테이블> 메뉴패턴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에 사용된 용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체계적인 재분류와 절제된 표현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 웹사이트 제작자와 일선 사서들의 메뉴구조와 용어선정 문제에 도움을 주고, 이용자에게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념적 혼동과 이해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new menu structure and terms to be used by Website design for utilization of academic library Website. The menu structure was analyzed, based on seven menu patterns of Website which is widely used, and terms were analyzed by the frequency appearing at the Website. According to the analyzed result, the menu structure used to more than two menu patterns and the terms appear variety. The profitable menu pattern appears <table> and <frame + table> menu structures and the terms needs to systematic re-classification and controlled present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help a designer to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fficient Website. It helps not only to solve the problem of menu structure and term selection for librarian, but get rid of confusion of library services for users.

keyword: 대학도서관, 웹사이트 메뉴, 메뉴구조, 메뉴용어, academic library, website menu, menu structure, menu ter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과(choi6367@hanmail.net)

■ 논문 접수일 : 2002. 11. 20

■ 게재 확정일 : 2002. 12. 5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새로운 매체, 특히 인터넷과 웹(web)은 커뮤니케이션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하이퍼링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웹은 인터넷의 막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을 한데 묶어 실시간으로 변하는 많은 양의 정보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전자상거래, 저작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 정보환경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는 이용자들에게 '정보의 폭발'과 '접근성의 폭발'이라는 현상을 가져왔다. '정보의 폭발'은 학문의 세분화와 연구사업 확대, 각종 평가의 증가, 기록물 생산기술의 향상 등과 같은 요인으로 정보의 폭발적인 양적 증가를 말하고, '접근성의 폭발'은 한곳에 집중되어 있던 콘텐츠가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공개되고, 자유로이 접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보, 혹은 유사한 정보가 각종 사이트를 통하여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것은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적정량을 가려내어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기술 습득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고, 부가가치가 있는 정보자원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최종 이용자들은 컴퓨터를 더 많이 이용하여, 분산된 인터넷 자원을 탐색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웹사이트를 찾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탐색된 웹사이트는 다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을 만한 메뉴를 선택하도록 이용자에게 요구한다. 메뉴를 선택할 경우, 1차적으로 선택된 메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비교적 메뉴의 구성과 용어의 선정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웹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인터페이스 등의 문제로 무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거나, 반복적인 진행으로 결과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사이트와 이용자의 첫 접점인 메인 페이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웹사이트 화면구조와 메뉴의 구성, 용어의 표기 등과 같은 문제로 볼 수 있다.

웹사이트 화면구조는 이용자와 시스템 간의 커뮤니케이션 매개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화면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정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자의 오류가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 설계되었다면 검색이 어렵고,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하

여 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메뉴명이 혼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 수준 낮은 그래픽 레이아웃, 새로운 디자인 기법의 불필요한 남용,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 디자이너 중심의 사고, 세세한 것에 대한 주의 부족 등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웹사이트에 나타난 메인메뉴(main menu)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브메뉴(submenu) 및 각종 콘텐츠를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웹사이트 메뉴구성과 표기될 용어는 이용자의 정보이용 판단에 1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역할에 부합할 메뉴는 가시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구성되어 사용자가 결정을 빨리 내리도록 시선의 집중력과 주의력을 높게 하고, 포함하고 있는 서브메뉴나 콘텐츠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이용자의 혼선과 고민을 제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사이트의 내용을 대충 브라우징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을 뿐, 사이트 구성과 내용을 파악하는 일에 고민하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점에 착안하여 웹사이트 설계시 메뉴구성과 여기에 표기될 용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웹사이트 메뉴구성과 용어와 관련된 기술적 이론을 살펴보고, 국내 대학도서관 웹사이트 메뉴에 사용된 용어와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적합한 메뉴구

조와 이를 표현할 적절한 용어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웹사이트 설계시 메뉴와 용어에 관련된 기술적, 이론적 배경을 규명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 대학도서관의 메뉴 구조와 사용된 용어를 조사, 분석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웹사이트 설계 및 제작시 사용될 메뉴의 구조와 표기할 용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도서관 웹사이트 제작자와 일선 사서들의 메뉴 구조와 용어선정 문제에 도움을 주고, 이용자에게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념적 혼동과 이해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1.3 선행연구

1.3.1 해외

ACM(1997)의 HCI(Human Computer Interface) 학술회의의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정리된, 웹의 사용편리성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 용어와 밀접한 내용을 살펴보면, '메뉴의 표제와 어휘들이 명료하지 않고, 사용자가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 사용은 신속한 의미 이해와 사용결정, 선택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많은 기억에 의존하게 하여, 이용의 고민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명확한 용어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Christerson & Pontau(1998)는 보편적인 웹디자인의 원칙에서 '사용자의 경험이나 학력, 언어능력 또는 집중력 정도와 상관없이 디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학력과 언어능력이 다른 사용자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대부분 인터넷 상에 존재하고 다양한 이용자를 지니고 있다. 물론 특정 이용자를 위한 제한적 사이트도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말하는 웹사이트는 인터넷상에서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이용자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섭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Rosenfeld & Morville(1999)는 선호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일반적인 유형을 보면,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메뉴명이 흔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메뉴명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적절한 자료를 찾지 못한 사용자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검색과 관련하여 메뉴명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Miller(1956)는 '잘 디자인된 인터페이스라면 표제어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표제어들은 주요 기능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일반적인 원칙은 사용자의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인터페이스 화면구성에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연구결과를 보면 인간의 단기 기억능력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에 7개 이상의 숫자나 단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매직 넘버 세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메뉴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제시하면서 메뉴 디자인이 작업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보자원이 어떤 종류의 작업을 지원하는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메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메뉴에 7개 이상의 항목이 포함되었다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정보자원이 지원하는 작업의 종류를 기억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메뉴에 사용될 항목은 7개 정도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Shneiderman(1993)은 메뉴디자이너의 첫째 임무는 잘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우며, 기억하기 편하게 그리고 의미를 잘 전달하도록 메뉴를 구성해서 사용자가 작업하기 좋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메뉴 디자인에 돌출단추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 유도성'을 지니고

있어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돌출 단추는 동작과 관련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단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작상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색채 사용에 있어서도 각 화면에 4가지 색채를 넘어서는 사용자의 주의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메뉴 디자인은 돌출단추를 사용하고, 각 화면의 색채는 4가지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Dumas(1988)는 전체 화면의 메뉴를 디자인하는 세 가지 일반적인 구성원리는 사용빈도와 논리적 조작순서, 알파벳 차례에 기초해 메뉴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가시적으로 확연한 위치에 배치하여 주의력을 집중시켜야 하고 이를 작동함에 있어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메뉴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1.3.2 국내

이지연(2002)은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원칙과 평가방법”에서 인터페이스 상호작용방식의 기존 유형인 메뉴 방식은 이용자의 인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서 메뉴 아이템의 집합과 명칭이 이용자에게 유용한 암시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용자 중심의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유재욱(2000)은 “대학도서관의 웹기반

전자참고정보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전자 참고정보원 소개사이트를 호칭하는 명칭이 도서관간에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적합한 명칭도 상당수 사용되고 있고, 통일된 분류항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의 이해를 쉽지 않게 하고 있으며, 유사한 의미의 메뉴를 다양한 형태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용자들이 메뉴에 표현된 용어에 의하여 상당부분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메뉴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이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상기(2000)는 “대학도서관 웹사이트 설계에 관한 연구”에서 웹자원 평가기준과 도서관 웹사이트 설계 기준을 근거로 조사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 23개 대학도서관 웹사이트를 권위, 정보내용, 기능성, 디자인 측면에서 조사분석하여 대학도서관 웹사이트 설계 지침을 제안하였다. 이 가운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내용과 관련하여 대학마다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장도서목록검색, CD-ROM검색, WebDB검색 서비스, 학위논문원문제공, 신착자료서비스, 도서관이용안내, 인터넷참고정보원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등으로 나타났고, 많은 사이트에서 메뉴와 관련된 기능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의 메뉴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의문사

항을 해결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서비스가 다양한 메뉴명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용어통일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웹사이트 설계와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메뉴와 관련된 논의도 웹디자인 부분에서 주로 메뉴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항목으로 일부 다루고 있다. 또한 메뉴에 사용될 용어에 대한 논의도 명확한 이해를 전제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용어 통일의 필요성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메뉴 구조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대학도서관의 메뉴구조를 실제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메뉴에 표기할 용어를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뉴는 많은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사용될 메뉴들은 이용자가 빨리 결정을 내리고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잘 구성된 메뉴구조와 함께 적절한 용어사용은 이용자들의 작업을 잘 지원하여 정보처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용 만족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메뉴 디자인 및 용어는 웹사이트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메뉴구조와 용어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으로 웹사이트 인터페이스 패턴과 레이블링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2.1 웹사이트 메뉴 패턴

Web 인터페이스 패턴(C.I.S 2002)에 보면 메뉴와 관련된 구조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프레임 분할로 메인, 서브 메뉴를 표시하는 패턴

윈도우를 세 개의 프레임으로 분할하여 메인 메뉴, 서브 메뉴, 컨텐츠의 내용을 표시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이것은 메뉴용 파일을 공용하므로 수정이나 갱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패턴의 페이지 구조는 일반적으로 3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상단 프레임>은 사이트명(타이틀)과 메인 메뉴를 표시하고, <좌측 프레임>은 선택한 메인 메뉴를 더 세분화한 서브 메뉴를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우측 프레임>에는 선택한 메뉴의 내용이 표시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 인터페이스 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인 메뉴용 HTML 파일을 모든 컨텐츠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메뉴

```

<HTML>
<HEAD>
</HEAD>
<FRAMESET cols = "200,*">
<FRAME src = "../menu.html">
<FRAME src = "../html.html">
<NOFRAMES>프레임을 못 보시는군요.
<BR>
<A href = "../menu.html">메뉴</A>로 바로 가세요.</NOFRAMES>
</FRAMESET>
</HTML>
    
```

<그림 1> NOFRAME의 실례

안에서는 서브 메뉴용 HTML 파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수정 및 갱신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둘째, 흔히 사용되는 대분류 → 소분류의 흐름을 갖는 구조로 이 구성에 익숙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사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셋째, 위쪽이 메인 메뉴(대분류)이고 왼쪽 아래가 서브 메뉴(소분류)로 이루어진 구조는 시선이 '위에서 밑으로'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넷째, 서브 메뉴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하 또는 좌우로 2분할해서 위나 왼쪽 프레임을 메뉴용 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패턴은 세 개로 분할될 경우, 전체 프레임을 정의하는 파일과 각 프레임을 표시하는 파일로 구성되므로 파일 관리가 다소 복잡해지고, 메뉴 부분이

많은 자리를 차지할 경우 콘텐츠를 표시할 공간이 작아지므로 화면에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점을 고려해야 하고, 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도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NOFRAME>태그 내에 콘텐츠를 작성해야 한다. NOFRAME은 프레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을 위한 엘리먼트이다. NOFRAMES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프레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NOFRAME의 실례는 <그림 1>과 같다.

(2) 스타일 시트로 메뉴 영역을 고정 표시하는 패턴

메뉴를 표시하는 영역과 콘텐츠를 표시하는 영역을 스타일 시트로 고정시켜 항상 같은 위치에 표시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이것은 스타일 시트로 자유로운 배치

가 가능하다.

이 패턴의 페이지 구조는 접속해서 처음으로 표시되는 소개 페이지로서 <인트로 페이지>와 스타일 시트로 위치를 고정시킨 메뉴 표시 영역인 <메뉴 영역>, 메뉴(링크)의 내용이 표시되는 콘텐츠용 영역인 <콘텐츠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인터페이스 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일 시트에서의 위치 지정은 프레임보다 더 간단하며 윈도우 내 임의의 장소에 메뉴 영역을 만들 수 있다.

둘째, 프레임 분할 등 현재 주로 쓰이는 방법들은 점차 스타일 시트로 변경되고 있으며, 그 밖의 꾸밈이나 레이아웃도 마찬가지로 스타일 시트로 표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스타일 시트 파일(.css)은 여러 페이지에서 스타일을 공유할 수 있다.

넷째, 하나의 파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파일 관리가 편리하다.

그러나 이 패턴은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제대로 표시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위치 지정은 주의해야 하며, 스타일 지정이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관리가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서브 윈도우에 메뉴 콘텐츠를 표시하는 패턴

자동으로 열리는 서브 윈도우에 메뉴를

표시하고 링크되는 콘텐츠를 하나의 고정 윈도우에 표시하는 구조이다. 서브 윈도우에는 크기 등 윈도우에 관한 설정도 가능하다.

이 패턴의 페이지 구조는 일반적으로 <타이틀 윈도우>와 메뉴 표시 전용 윈도우인 <서브 윈도우1>과 메뉴이 내용(링크할 곳)이 표시되는 빈공간인 <서브 윈도우2>로 구성된다.

이 인터페이스 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뉴를 서브 윈도우에 모아 넣고 콘텐츠 표시 전용 윈도우를 열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을 표시하는 공간을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둘째, JavaScript의 윈도우 자동 열림 기능은 액티브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셋째, 메뉴용 서브 윈도우는 일정 시간마다 앞쪽에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를 찾지 못하는 일은 없다.

넷째, 페이지(각 콘텐츠) 사이를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이트 전체를 파악하기 쉽다.

그러나 이 패턴은 강제로 열리는 서브 윈도우가 광고 창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윈도우가 여러 개 생기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든 측면도 있으며, 브라우저의 설정에 따라 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다른 메뉴 표시도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테이블 태그로 메뉴와 콘텐츠를 레이아웃하는 패턴

테이블 태그를 사용해서 윈도우 안의 영역을 나누어 배치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일관성이 높으며 많은 정보를 수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 등 정보량이 많은 사이트에서 이용된다.

이 패턴의 페이지 구조는 사이트명(타이틀)과 메인 메뉴버튼을 표시한 <메인 메뉴 영역>과 업데이트 정보나 뉴스 등의 항목을 나타내는 <인포메이션 영역>, 메뉴 내용 등 사이트의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사이트맵 영역>, 각 메뉴의 서브 메뉴를 표시하는 <서브메뉴>로 구성된다.

이 인터페이스 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사이트 등 많은 콘텐츠를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하다. 테이블의 칸마다 배경 그림이나 배경색을 넣을 수 있는 점도 정보의 정리와 디자인에 도움이 된다.

둘째, 스크립트나 그림의 남용을 피해 비교적 빠르게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셋째, 일반적인 <TABLE>태그를 이용했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종류나 버전에 상관없이 동작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패턴은 <TABLE>태그는 원래 표를 만드는 데 쓰이는 태그이므로 레이아웃을 위해 쓰는 것은 변칙적인 방법이며, 테이블 구조가 복잡해지면 수정이나 갱신이 어려워지거나 표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5) 풀다운 메뉴를 프레임으로 작성하는 패턴

각 콘텐츠의 메뉴를 풀다운 메뉴로 만들어 페이지 윗부분에 배치하고 아랫부분은 링크를 표시하는 인터페이스이다. 항상 표시되는 메뉴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

이 패턴의 페이지 구조는 사이트명과 풀다운으로 표시하는 메인메뉴 프레임과 메뉴의 내용이 표시되는 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인터페이스 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뉴를 작은 공간에 모아두기 때문에 메뉴 표시에 의한 디자인의 제약이 적다.

둘째, 메뉴 수가 변경되어도 디자인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메뉴의 추가, 삭제가 간단하다.

셋째, 텍스트량을 줄인 심플한 디자인에 어울린다.

넷째, 풀다운 메뉴에서 메뉴(이동할 곳)를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메뉴상에서 클릭하는 것보다 신선미가 있다.

그러나 이 패턴은 면적이 작아 눈에 띄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메뉴의 존재감이 없어지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고, 풀다운 메뉴의 형태나 메뉴 안의 스타일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의 디자인은 좀 단순해질 수 있으며,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메뉴 표시도 병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6) 이미지 맵 메뉴에서 다른 윈도우에 콘텐츠를 표시하는 패턴

톱 페이지에 이미지 맵을 사용한 메뉴를 배치하고 링크된 콘텐츠를 다른 윈도우에 표시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이미지 맵의 윈도우는 항상 표시되기 때문에 사이트를 멋진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패턴의 페이지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맵이 메인 메뉴를 표시한 <메인 윈도우>와 메뉴의 사용법 등 간단한 정보를 표시하는 <서브 윈도우>, 이미지 맵에서 설정된 링크 페이지가 표시되는 <콘텐츠 표시 윈도우>로 구성된다.

이 인터페이스 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지로 메뉴를 만들기 때문에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하며 사이트의 개성을 확연하게 표현할 수 있다.

둘째, 화면을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데 반해 작성 수단은 HTML 태그뿐이므로 보는 이의 환경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셋째, 콘텐츠를 별도의 윈도우로 표시하므로 콘텐츠를 표시할 공간이 많아진다.

그러나 이 패턴은 이미지 맵 그림의 파일 크기가 크므로 색상 수를 줄이는 등의 압축을 통해 크기를 줄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하고, 한 장의 그림 안에 링크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 링크 버튼이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그림을 알기 쉽게 가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메뉴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링크

텍스트 등 다른 메뉴 표시도 병용해야 한다.

(7) 팝업메뉴를 표시하는 패턴

각 페이지에서 필요한 때만 클릭 한 번으로 메뉴를 표시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윈도우의 임의의 영역을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표시되며 메뉴를 선택하면 특정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 패턴의 페이지 구조는 각 페이지에서 클릭으로 표시되는 <팝업 메뉴>와 메뉴에서 링크된 콘텐츠 페이지가 표시되는 <콘텐츠 표시 윈도우>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인터페이스 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팝업 메뉴는 필요시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콘텐츠의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둘째, 메뉴나 콘텐츠를 하나의 윈도우에 표시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상의 위치와 관계가 없으며 HTML 파일도 관리가 편하다.

셋째, 메뉴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서 재빨리 메뉴를 열 수 있다.

넷째, 팝업 메뉴는 <TABLE>태그를 사용한 HTML 파일이므로 배경색이나 이미지, 글자색, 그 밖의 스타일 시트를 조합해서 화려하게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패턴은 클릭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메뉴는 처음 방문한 사람한테는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 페이지마

다 안내가 필요하고, 소스(source)가 조금 복잡하며 메뉴의 추가나 삭제 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메뉴 표시도 병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2.2 레이블링 시스템(labeling system)

레이블링(labeling)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의 한 형식이다. 또한 사이트 구조 체계, 네비게이션 시스템들을 명확히 표현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절한 레이블을 이용하면 연상작용을 유도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보를 이용할 때, 덩어리 단위의 정보들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주제별로 적절히 나뉘어져 있고 중요도에 따라 레이블 메뉴가 구성되어 있으면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레이블의 목적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페이지의 수직 공간이나 사용자의 인식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웹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작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레이블은 사용자에게 사이트의 구조 체계와 네비게이션 시스템들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다. '짧은 주의 집중과 빠른 판단'이라는 이용자들의 행태를 고려하면 레이블링은 웹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

나이다.

레이블링 시스템의 유형(Rosenfeld & Morville 1999)은 네비게이션 시스템 속의 레이블, 색인어로서의 레이블, 링크 레이블, 표제 레이블, 아이콘 레이블 등이 있다. 효과적인 레이블링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트 소유자가 아닌 사이트 이용자의 생각과 언어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레이블링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시스템 차원보다는 다소 도구적, 시각적, 언어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사이트의 목적, 용도에 맞는 콘텐츠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레이블링들은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시스템상의 언어와 이용자 언어가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레이블들은 융통성 있게 선택된 통제어와 기준어를 이용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용자-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통제어 개발과 등록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레이블링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레이블을 만들기 위한 참고자료는 현재 사용 중인 표현법이나 레이블 명을 검토하거나 다른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도 있고, 통제어 사전과 유의어 사전을 참고하거나 콘텐츠에서 직접 레이블을 찾을 수도 있고, 이용자와 전문가로부터 레이블을 얻을 수도 있다. 특히 이용자와 전문가로부터 얻은 레이블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로서 레이블링에 대한 최고의 정보원이다.

한편, 사이트 이용자들이 실제로 어떠

한 레이블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검색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색식 분석은 이용자들이 특별히 찾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결과를 얻지 못한 검색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 용어들을 레이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콘텐츠를 사이트에 추가하여 향후에 이용시 좋은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이트의 전체적인 레이블링을 살펴볼 때 각 레이블링 간의 관계는 균형적이어야 하며, 이용자가 콘텐츠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레이블링 간의 수직, 수평관계도 고려해서 구축되어야 한다.

레이블에 사용될 어법이 능동형이나 혹은 수동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불일치되는 요소들은 해결되어야 하고, 일관적으로 하나의 형태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의어인 경우는 사용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동일한 레이블들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사용자들은 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적어도 동일한 단일 사이트 내에서는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부는 혼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레이블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사용자의 생각과 언어를 반영해야 하고, 구조 체계가 주제 중심이나, 작업 지향적 접근이라면 레이블도 주제중심이나 작업 지향적인 이름으

로 지어져야 한다.

3 국내 대학도서관 웹사이트 메뉴구조와 용어 조사

3.1 조사목적

웹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는 메뉴 구조와 용어를 표준화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일은 웹의 특성으로 보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들을 표준화하여 통일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큰 의미를 가져올 것도 불투명하다고 본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웹의 다양성으로부터 확실성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마다 동일한 서비스 개념을 다른 메뉴명으로 표기한다면 이용자에게 혼동을 주어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순간적인 결정과 빠른 선택'이라는 이용자의 행태로 보아 외면당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표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양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의미적으로 일관성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미가 명확하고 절제된 용어 표현으로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고, 검색효율성과 이용편리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 조사는 현재 국내에서 웹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메뉴 구조와 표기된 용어를 조사, 분석하여 적절한 메뉴 구조와 용어를 제

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3.2 조사방법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뉴구조와 용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인터넷 야후(YAHOO)에 등록된 124개 대학도서관 가운데 메뉴 구조와 체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이트 맵'을 웹사이트에 수록하고 있는 46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야후 검색을 선택한 이유는 비교적 많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검색엔진으로서, 주제별로 잘 정돈된 디렉토리 아래에 관련정보가 모여있기 때문이고, '사이트 맵'을 웹사이트에 수록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범위를 한정할 이유는 사이트 맵의 특성상 각각의 메뉴 체계와 내용을 시각화하고 있어 보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이트 맵에서는 전체적인 컨텍스트(context)를 알려주고 있어, 각 사이트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메인메뉴와 서브메뉴의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선정된 46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웹 사이트를 조사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도서관의 웹사이트 메뉴체계 및 구조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메인 메뉴 및 1차 서브 메뉴의 그룹수와 구조 패턴을 조사하였다.

둘째, 각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메뉴 단계를 조사하였다. 각 메뉴단계는 사이트 맵에서 계층적으로 보여주는 최대한의 단

계를 조사하였다. 왜냐하면 메인메뉴 아래에 서브메뉴가 경우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고, 1차로 끝나는 경우, 혹은 2차 이상으로 계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각 도서관의 사이트 맵에 나타난 메인메뉴와 서브메뉴에 표기된 용어를 조사하였다. 본 메뉴용어 조사는 메인메뉴와 1차 서브메뉴까지만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 메뉴에 사용된 용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특별히 더 깊은 단계까지 구분지어 분석할 만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조사결과 분석

4.1 메뉴 구조분석

메뉴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항목을 선택하게 한다. 이러한 메뉴구성방식은 단일 메뉴와 순차적 메뉴, 트리구조메뉴, 네트워크 메뉴가 있다. 현재 각종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조는 트리구조이다. 트리구조 메뉴방식은 항목이 다양하고 많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항목들을 집합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트리구조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방식은 많은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편리한 방식으로, 중요한 것은 깊이(depth)와

넓이(breadth)를 정하는 것이다. 메뉴 트리의 깊이, 즉 메뉴 단계의 수는 각 메뉴 단계에서의 항목의 개수, 즉 넓이에 의존한다. 만약 더 많은 항목들이 주 메뉴에 들어 있다면 메뉴 트리의 넓이는 확장되고 단계는 적어져서 깊이는 줄어들 것이다. 반면에 적은 메뉴 항목들로 메뉴를 구성한다면 단계는 많아져서 깊이는 늘어날 것이다.

Miller(1956)는 인간의 단기기억능력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에 7개 이상의 숫자나 단어를 기억하기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최상기(2000)는 일반 상식과 인지심리학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7개 그룹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7개 그룹이 가장 이상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 메뉴그룹은 가능하면 7개를 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할 것이다.

각 메뉴의 단계는 네비게이션과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이트 네비게이션을 기획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 중의 하나로 '3클릭 5초 법칙'이 있다. 3번 클릭전에 원하는 정보나 콘텐츠를 찾을 수 있고 5초 이내에 어디로 이동할지, 이동할 목적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트 전체의 구조도 가능하면 3단계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http://cezio.new21.org>[2002,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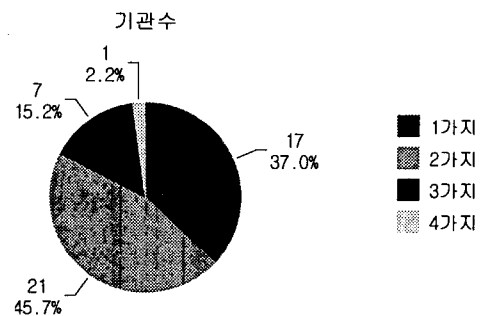
이들을 종합하면 메뉴 옵션은 각 화면마다 7개 또는 그보다 적어야 이용자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각 메뉴의 단계는 3단계를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1) 메뉴구조 패턴

앞에서 살펴본 7가지의 웹사이트 메뉴 구조 패턴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웹사이트 메뉴 구조 패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웹사이트 메뉴구조에 사용된 패턴을 조사한 결과, <그림 2>과 같이 2가지 구조를 혼합하여 사용한 도서관이 21개(45.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1가지 메뉴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17개(37.0%), 3가지 구조가 7개(15.2%), 4가지 구조가 1개(2.2%)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도서관에서 웹사이트 메뉴구조로 2가지 이상을 혼합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은 각 메뉴 패턴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배가시키려는 것이다.



<그림 2> 웹사이트 메뉴패턴 수

둘째, 웹사이트 메뉴구조에 사용된 패턴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4가지 메뉴구조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도서관은 프레임과 스타일시트, 테이블, 풀다운 메뉴 패턴이 사용되고 있고, 3가지 메뉴구조는 프레임과 테이블, 풀다운 메뉴 패턴이 3개, 프레임과 스타일시트, 테이블 패턴이 2개, 스타일시트와 테이블, 풀다운 메뉴패턴이 2개로 나타났다. 2가지 메뉴구조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프레임과 테이블 메뉴패턴이 14개로 가장 많았고, 스타일시트와 테이블이 4개, 테이블과 풀다운 패턴이 3개로 나타났으며, 1가지 메뉴구조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테이블이 16개, 이미지 맵 패턴이 1개로 나타났다. 이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웹사이트 메뉴패턴 내용

패턴	기관	내용
4가지	1	프레임+스타일시트+테이블+풀다운
3가지	3	프레임+테이블+풀다운
	2	프레임+스타일시트+테이블
	2	스타일시트+테이블+풀다운
2가지	14	프레임+테이블
	4	스타일시트+테이블
	3	테이블+풀다운
1가지	16	테이블
	1	이미지맵

위의 조사내용을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2가지 이상의 메뉴구조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패턴은 <테이블>과 <프레임 + 테이블> 메뉴패턴으로 나타났다. <프레임 + 테이블>

메뉴패턴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주요 메뉴는 메인 프레임에 고정시켜 메뉴용 파일을 공용하고, 테이블을 사용해서 윈도우 내의 영역을 나누어 주요 서브메뉴를 배치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흔히 사용되는 구조로 이 구성에 익숙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사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선이 '위에서 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테이블 메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한 사이트나 페이지의 전체적인 컨텍스트(context)를 간단명료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프트웨어의 '미리보기' 명령처럼, 사용자에게 모든 옵션을 개괄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가 시각화될 필요가 있다면 <테이블 메뉴>가 적합하다.

(2) 메뉴 그룹 수 및 계층구조

본 연구에서 조사한 메뉴 그룹수와 단계별 계층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인 메뉴 그룹수를 조사한 결과는 7가지가 9개(19.5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8가지 7개(15.22%), 6가지 6개(13.04%), 4가지 5개(10.86%), 9가지와 5가지가 각각 4개(8.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1가지에서 20가지의 메뉴가 메인 페이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웹사이트 메인 메뉴별 기관수

메뉴수	기관수
7	9
8	7
6	6
4	5
5,9	4
11,12,13,20	2
3,14,16	1

〈표 2〉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6-8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메뉴구조인 7개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메뉴 구성 패턴에 제한 받지 않고 메인 페이지에 〈테이블〉 형태로 많은 메뉴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기관도 있다. 이것은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파묻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웹을 항해할 경우, 보다 빠른 이동을 도모하려는 형태로, 다양한 콘텐츠와 콘텐츠의 양적 증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안으로 오늘날 웹사이트에서 지향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둘째, 메뉴의 단계별 계층구조를 조사한 결과는 3단계가 25개(54.3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4단계 18개(39.13%), 5단계 3개(6.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웹사이트 단계별 기관수

단계	기관수
3	25
4	18
5	3

〈표 3〉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3단계로 최종 정보가 나타나게 하고 있지만, 4단계와 5단계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도 상당수여서 이들의 단계를 보다 낮은 단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3번 클릭전에 원하는 정보나 콘텐츠를 찾을 수 있고 5초 이내에 어디로 이동할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단계별 깊이가 4-5단계 이상으로 깊어질 경우에는 이용자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3번의 클릭으로 이동이 가능한 낮은 단계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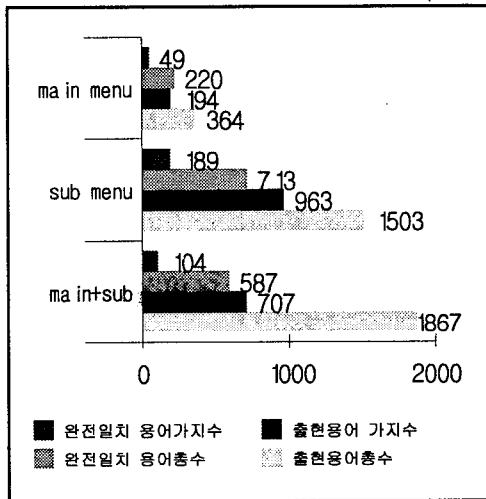
4.2 메뉴 용어분석

선정된 대학도서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뉴용어를 살펴보았다. 즉, 분석 대상 도서관의 용어를 외형적으로 수치 분석하였고, 메인메뉴와 서브메뉴에 나타난 용어를 분석하였다.

4.2.1 메뉴용어의 외형적 수치분석

메뉴에 사용된 용어의 출현 총수는 메인 메뉴가 364개, 서브메뉴가 1,503개로 나타났고, 출현하는 용어의 가지 수는 194개와 963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용어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용어가 출현한 회수는 각각 220개와 713개로 나타났고, 완전일치 용어의 가지 수는 49개와 189개로 나타났다. 메인 메뉴와 서브메뉴에 출현한 용어의 총수는 1,867개로 나타났고, 출현한 용어의 가지 수는 707개로 나타났

으며, 이 가운데 중복되어 출현한 용어의 총 수는 587(메인 메뉴 244, 서브메뉴 343)개로 104가지의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용어들의 출현 빈도와 일치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메뉴용어 출현 결과분석

<그림 3>을 살펴보면 용어로 출현한 가지수는 메인메뉴가 194개, 서브메뉴가 963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144개와 774개의 용어는 독창적 의미로 사용되었거나 동일한 의미를 다르게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웹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수치상으로 너무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웹의 특성을 다소 수용하면서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절제된 용어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4.2.2 메뉴 용어분석

메뉴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추측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될 용어는 콘텐츠의 의미를 간단명료하고,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메뉴는 메뉴 바에 텍스트를 부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메뉴 제작시 만들기가 쉽고, 가장 확실하게 각 옵션들의 콘텐츠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한편, 웹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다양한 사고와 제각기 다른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용자들을 위한 정확한 메뉴명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적합한 용어 사용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이트의 목표와 이용자 유형에 따라 동일 내용을 나타내는 다양한 메뉴 명 가운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메뉴 명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이 방안은 이용자들이 이미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웹상에서 많이 접해 보았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인 메뉴와 서브메뉴에 나타난 실제 내용을 조사하여 이들을 각 영역별로 구분한 다음, 여기에 표현된 용어를 사용빈도의 우선 순으로 배열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조사한 메뉴 용어는 메뉴에 사용

된 용어가 완전하게 일치하면서, 2번 이상 나타난 경우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즉, 특정 사이트에서 1번만 사용된 용어는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각 도서관의 특성상 독특하게 사용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 용어의 객관성 측면에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각 영역의 개별적 항목분석은 특이한 경우에만 분석하였고, 나머지는 해당 표에 나타난 사항으로 대신하였다.

(1) 메인 메뉴 용어분석

메인 메뉴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대표하여 나타내는 이용자의 빠른 판단과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준다. 즉 이용자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할 것인가, 이용한다면 어떤 메뉴에서 찾는지 하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메뉴는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들어온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정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고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메인 메뉴에 사용된 용어들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메인 메뉴 용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인 메뉴로 사용된 용어 가운데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용어는 29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사한 의미를 5가지 이상의 용어로 표현한 경우가 4회, 4가지 용어가 3회, 3가지 용어가 5회, 2가지 용어가 5회, 1가지 용어로만 사용한 경우가

12회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1가지 용어로 표현한 경우도 2회에 걸쳐 완전 일치한 용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이용자에게 많은 혼란과 선택의 고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다 절제된 용어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각 영역별로 나타난 순위는 전반적으로 도서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검색분야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도서관안내 및 이용자서비스, 게시판, 도서관서비스, 전자도서관, 학술DB, 관련사이트, 개인정보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을 표현한 용어들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메뉴를 배치한 순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항목의 재분류 및 재배열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메뉴배열 순서는 항목의 알파벳(Alphabet)순서나 항목의 분류별(Catagorical) 순서, 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순서나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순서 등으로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표현된 용어를 언어별로 구분하면 한글과 영어가 혼용되고 있었다. 특히 영어는 완전한 영문(full-name)과 약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와 한글과 영문약어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영문을 한글로 표현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예컨대 about library, digital library, my collection, FAQ, VOD, BBS, WWW검색, CD-ROM검색, 학술DB, 학술database, 웹

〈표 4〉 메인 메뉴에 나타난 용어

main menu 용어 및 사용빈도수									출현수	
자료검색	9	소장자료검색	8	통합검색	6	정보검색	4	Search	2	33
		검색서비스	1	도서관자료검색	1	도서관정보검색	1	종합자료검색	1	
도서관안내	21	도서관소개	6	학술정보원소개	2	About Library	2	학술정보관안내	1	32
이용자서비스	8	이용안내	6	도서관이용안내	4	Services	3	이용자	2	26
		서비스	2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1					
게시판	11	게시판/기타	2	자유게시판	1	전자게시판	1	BBS센터	1	16
도서관서비스	13	자료실별서비스	1							14
전자도서관	7	Digital Library	3	가상도서관	1	디지털도서관	1			12
학술DB	8	학술DB검색	2	학술 Database	1	학술데이터베이스	1			12
관련사이트	6	추천사이트	4	관련기관	2					12
개인정보관리	7	비밀번호변경	2							9
전자저널	7	Electronic Journals	1							8
신착자료	4	신착	1	신착자료안내	1					6
참고정보원	4	인터넷참고자료	1							5
알림마당	3	공지사항	2	개인공지사항	3					8
인터넷여행	2	웹검색	1	WEB검색	1	WWW검색	1			5
CD-ROM	4	CD-ROM검색	1							5
VOD	4									4
대출연장/ 예약조회	2	개인대출현황	1	대출정보	1					4
학위논문	2	학위논문관리시스템	1	학위논문제출	1					4
희망도서신청 /조회	3	희망도서신청	1							4
FAQ	4									4
타기관자료검색	3									3
Home	3									3
정보광장	3									3
My Collection	3									3
기타	2									2
도서관소식	2									2
정보사이트	2									2
교내사이트	2									2
My Digital Library	2									2

검색 등이다. 이와 같은 외래어의 차용은 최근에 서구와의 접촉이 가속화되고 새로

운 개념과 문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새로운 어휘가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되고 있

고, 특히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어적인 성격을 띠고 사용되어 오던 컴퓨터 관련 어휘들이 최근에 와서 컴퓨터 보급과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정보제공에 이용되는 주된 장비와 도구가 컴퓨터와 웹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은 가능한 한글로 대체하고, 대체가 다소 어려운 경우에는 원어와 약어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되 풍선 및 박스 설명 등으로 처리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일반화되지 않은 생소한 용어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서브메뉴 용어분석

서브메뉴는 계층적으로 메인메뉴 아래에 위치하고, 상위 메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상위 메뉴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다. 또한 서브메뉴는 하부메뉴로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역할을 하며, 콘텐츠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서브메뉴는 콘텐츠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고, 명확한 의미를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즉, 이용자들의 혼란과 고민을 제거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서브메뉴에 사용된 용어들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서브메뉴 용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인메뉴 용어에 나타난 특성이

서브메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즉, 용어의 가지 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표현된 용어의 언어별 특성도 메인메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많은 혼란과 선택의 고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서브메뉴 또한, 보다 절제된 용어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서브메뉴에 사용된 용어는 보다 정확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메인메뉴에 비하여 단어수가 많고, 길이가 긴 용어가 다수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을 상세하게 표현한 경우, 구어체로 표현한 경우, 순수한 우리말로 사용한 것, 완전한 영문으로 표현한 것 등이다. 간단명료한 용어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웹에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고정된 컴퓨터 화면에 다양한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다 간단명료하고, 함축적인 용어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모든 메뉴에서 가장 많은 용어로 사용된 분야는 대출과 반납에 관한 내용이다. 총 40회로 나타난 대출과 반납은 25가지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대출과 반납은 다른 업무에 비하여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도서관업무로, 관련된 내용도 다양하다. 그러나 본연구가 선정한 메뉴는 메인메뉴와 1차 서브메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너무 많은 형태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은 틀림

〈표 4〉 메인 메뉴에 나타난 용어

main menu 용어 및 사용빈도수									출현수	
자료검색	9	소장자료검색	8	통합검색	6	정보검색	4	Search	2	33
		검색서비스	1	도서관자료검색	1	도서관정보검색	1	종합자료검색	1	
도서관안내	21	도서관소개	6	학술정보원소개	2	About Library	2	학술정보관안내	1	32
이용자서비스	8	이용안내	6	도서관이용안내	4	Services	3	이용자	2	26
		서비스	2	학술정보관 이용안내	1					
게시판	11	게시판/기타	2	자유게시판	1	전자게시판	1	BBS센터	1	16
도서관서비스	13	자료실별서비스	1							14
전자도서관	7	Digital Library	3	가상도서관	1	디지털도서관	1			12
학술DB	8	학술DB검색	2	학술 Database	1	학술데이터베이스	1			12
관련사이트	6	추천사이트	4	관련기관	2					12
개인정보관리	7	비밀번호변경	2							9
전자저널	7	Electronic Journals	1							8
신착자료	4	신착	1	신착자료안내	1					6
참고정보원	4	인터넷참고자료	1							5
알림마당	3	공지사항	2	개인공지사항	3					8
인터넷여행	2	웹검색	1	WEB검색	1	WWW검색	1			5
CD-ROM	4	CD-ROM검색	1							5
VOD	4									4
대출연장/예약조회	2	개인대출원황	1	대출정보	1					4
학위논문	2	학위논문관리시스템	1	학위논문제출	1					4
희망도서신청/조회	3	희망도서신청	1							4
FAQ	4									4
타기관자료검색	3									3
Home	3									3
정보광장	3									3
My Collection	3									3
기타	2									2
도서관소식	2									2
정보사이트	2									2
교내사이트	2									2
My Digital Library	2									2

검색 등이다. 이와 같은 외래어의 차용은 최근에 서구와의 접촉이 가속화되고 새로

운 개념과 문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새로운 어휘가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되고 있

고, 특히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어적인 성격을 띠고 사용되어 오던 컴퓨터 관련 어휘들이 최근에 와서 컴퓨터 보급과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정보제공에 이용되는 주된 장비와 도구가 컴퓨터와 웹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은 가능한 한글로 대체하고, 대체가 다소 어려운 경우에는 원어와 약어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되 풍선 및 박스 설명 등으로 처리하여 이용자들이 하여금 일반화되지 않은 생소한 용어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서브메뉴 용어분석

서브메뉴는 계층적으로 메인메뉴 아래에 위치하고, 상위 메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상위 메뉴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다. 또한 서브메뉴는 하부메뉴로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역할을 하며, 콘텐츠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서브메뉴는 콘텐츠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고, 명확한 의미를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즉, 이용자들의 혼란과 고민을 제거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서브메뉴에 사용된 용어들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서브메뉴 용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인메뉴 용어에 나타난 특성이

서브메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즉, 용어의 가지 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표현된 용어의 언어별 특성도 메인메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많은 혼란과 선택의 고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서브메뉴 또한, 보다 절제된 용어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서브메뉴에 사용된 용어는 보다 정확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메인메뉴에 비하여 단어수가 많고, 길이가 긴 용어가 다수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을 상세하게 표현한 경우, 구어체로 표현한 경우, 순수한 우리말로 사용한 것, 완전한 영문으로 표현한 것 등이다. 간단명료한 용어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웹에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고정된 컴퓨터 화면에 다양한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다 간단명료하고, 함축적인 용어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모든 메뉴에서 가장 많은 용어로 사용된 분야는 대출과 반납에 관한 내용이다. 총 40회로 나타난 대출과 반납은 25가지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대출과 반납은 다른 업무에 비하여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도서관업무로, 관련된 내용도 다양하다. 그러나 본연구가 선정한 메뉴는 메인메뉴와 1차 서브메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너무 많은 형태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은 틀림

〈표 5〉 서브메뉴에 나타난 용어

sub menu 용어 및 사용빈도수								출현수		
대출/반납	5	대출연장/예약조회	5	대출정보관리	4	대출/반납안내	2	대출정보조회	2	40
		대출예약확인/재대출	2	대출예약확인	1	도서대출예약 신청 및 취소	1	대출/예약상황 조회	1	
		대출/예약확인	1	대출현황조회	1	대출현황조회/대출연기신청	1	대출확인/재대출	1	
		대출상황조회/연장	1	대출,예약,갱신 현황조회	1	대출현황/대출연장	1	대출 및 반납안내	1	
		대출 BEST	1	대출 및 연체현황조회	1	대출반납	1	대출자료검색	1	
		대출조회/연장	1	대출도서연장	1	대출반납 및 갱신	1	대출,반납,연기	1	
		대출현황	1							
개인정보관리	16	개인정보수정	4	비밀번호변경	3	이용자정보수정	2	이용자 비밀번호변경	2	37
		이용자수칙2	1	개인정보변경	1	개인정보관리 (대출 및 연체현황)	1	이용자정보관리	1	
		사용자정보	1	개인정보건의관리	1	개인정보	1	개인정보조회	1	
		암호변경	1							
신착자료검색	13	신착자료조회	6	신착자료안내	4	신간리스트	3	신착도서검색	3	37
		신착자료	1	신착도서조회	1	신착도서보기	1	신착정보알리미	1	
		신착자료서비스	1	신착자료속보	1	신착도서	1	신착단행본	1	
도서관소개	16	소개	5	도서관현황	4	현황	3	도서관안내	2	36
		시설안내	2	개요	2	정보센터소개	1	도서관개요	1	
이용안내	17	도서관이용안내	5	실별안내	5	실별이용안내	4	이용방법	2	34
		개요	1	자료실안내	1					
희망도서신청	15	도서구입신청	5	희망도서신청/조회	5	도서신청/확인	2	자료신청안내	2	33
		희망도서구입	1	희망도서구입신청	1	구입희망도서신청	1	구입희망도서 확인/수정	1	
원문복사 서비스	7	원문복사신청	7	상호대차	5	원문복사	2	원문신청서비스	2	33
		상호대차서비스	2	원문검색	2	원문서비스	1	원문복사신청현황	1	
		원문	1	원문정보	1	Full Text Delivery	1	원문복사신청/조회	1	
학위논문	11	학위논문검색	8	학위논문제출	4	학위논문원문	3	학위논문등록	2	28
공지사항	19	알림담당	1	새로추가된내용	1	새소식	1	새소식알림 (NEWS)	1	26
		공지사항리스트	1	공지사항알림	1	공지	1			
멀티미디어/비도서	3	멀티미디어자료검색	3	멀티미디어	2	시청각자료	2	비도서검색	2	24
		시청각자료검색	1	멀티미디어 자료서비스	1	도서관 멀티미디어자료	1	미디어검색	1	
		멀티미디어자료	1	미디어자료검색	1	비도서	1	비도서자료목록	1	
		비도서자료검색	1	비도서자료	1	비도서자료이용	1	멀티미디어원문	1	
FAQ	18	도서관FAQ	2	fAQ's	1	FAQ/도서관 백배 활용하기	1	Frequently Asked Question	1	28
전자저널	14	전자저널검색	8	E-Journal	2	Electronic Journal		Online Journal	1	21
소장자료검색	12	검색	6	자료검색	1	소장자료통합검색	1			20
자유게시판	10	게시판	4	전자게시판	3	게시판(BBS)	2			19
CD-ROM검색	8	CD-ROM	5	CD-ROM DB	3	CD-ROM자료검색	1	CD-ROM DB검색	1	18
기사	5	기사색인	5	기사색인검색	4	기사검색	3			17
참고정보원	7	참고정보	2	온라인참고정보원	1	인터넷참고자료실	1	인터넷참고정보	1	17
		인터넷참고자료	1	인터넷참고정보원	1					
연혁	7	도서관연혁	2	개황	2	연혁/개요	1	개요 & 연혁	1	16
		개황 및 연혁	1	도서관개황	1	도서관의 역사	1			

〈표 5〉 서브메뉴에 나타난 용어-계속

sub menu 용어 및 사용빈도수									출현수	
Q&A	6	질의응답	4	Q/A게시판	2	궁금합니다	1	문고답하기	1	15
		질문과 답변	1							
통합검색	5	종합검색	4	고급검색	3	일반검색	3			15
단행본	8	단행본검색	2	도서검색	2	도서정보검색	2			14
국내외도서관	5	국외도서관	5	국내도서관	3					13
도서관사람들	7	직원소개	4	조직	2					13
개관시간	5	이용시간	5	운영시간	1	개관시간/휴관일	1	개관안내	1	13
온라인참고봉사	3	참고봉사	2	참고질의응답	2	온라인참고서비스	1	온라인참고질의	1	13
		참고질의 및 응답	1	참고질의 응답서비스	1	온라인 Reference	1	인터넷참고봉사	1	
대학도서관	5	국내대학도서관	2	국외대학도서관	2	전국대학목록	1	전국대학종합검색	1	11
도서관규정	5	규정	2	규정안내	1	도서관관련규정	1	운영규칙	1	11
		중앙도서관규정	1							
검색엔진	9	인터넷검색엔진	2							11
사이버서점	5	인터넷서점	4	사이버북스토어	1					10
연속간행물	8	연속간행물검색	2							10
자료실	7	공개자료실	2							9
개인공지사항	6	개인공지 및 건의 사항	1	개인공지건의	1	개인공지관리	1			9
사이트맵	3	Site Map	3	지식맵	2					8
온라인DB검색	3	데이터베이스	2	온라인DB	2					7
기타서비스	5	기타	2							7
가나다순리스트	5	가나다순 검색	2							7
VOD	3	VOD검색	2	VOD Service	1	VOD/AOD	1			7
전자정보실	3	전자도서관	2	Digital Library	1					6
이용자교육	3	이용자교육신청	3							6
고문헌	2	고서	2	고문헌원문	1	고서목록현황	1			6
SDI 서비스	2	SDI 신청 및 조회	2	SDI서비스	1	SDI신청/조회	1			5
우선정리 도서요청	2	우선정리요청	2							4
주제별 검색	2	주제별검색리스트	2							4
Help	2	Help Desk	2							4
Web DB	2	온라인 Web DB	1	Web DB 검색	1					4
Z39.50	2	Z39.50검색	1	Z 서버검색	1					4

없다. 따라서 이들 용어를 재조정하여 사
용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조사한 메뉴 구조와 용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뉴구조 패턴은 <테이블>과 <프레임 + 테이블> 메뉴패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테이블> 메뉴패턴은 한 사이트나 페이지의 전체적인 컨텍스트(context)를 간단 명료하게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프레임과 테이블> 메뉴패턴은 주요 메뉴를 프레임에 고정시켜 메뉴용 파일을 공용하고, 테이블을 사용하여 주요 서브메뉴를 배치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수록할 수 있어서 모두다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테이블> 메뉴는 정보의 내용이 파묻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웹을 항해할 경우, 보다 빠른 이동을 도모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와 콘텐츠의 양적 증대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면 <테이블> 메뉴가 적합하다.

둘째, 메인메뉴 수를 조사한 결과, 7가지의 메뉴구조를 가진 도서관이 9개(19.5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메뉴의 단계별 계층구조를 조사한 결과는 3단계가 25개(54.35%)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메뉴의 수가 7개 이상인 경우도 있었고, 4-5단계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도 상당수여서 이들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뉴용어의 외형적 수치분석 결과, 메인메뉴가 194개, 서브메뉴가 963개로 용어의 총 가지 수는 707개로 나타났고, 나머지 144개와 774개의 용어는 독창적 의미로 사용되었거나 동일한 의미를 다르게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웹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수치상으로 보아 너무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웹의 특성을 다소 수용하면서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각 분야별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각 메뉴에 사용된 용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메인메뉴로 사용된 용어 가운데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용어는 29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용자에게 많은 혼란과 선택의 고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다 절제된 용어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② 각 영역별로 나타난 순위는 전반적으로 도서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 순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메뉴들을 배치하는 순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이용자 중심으로 배열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③ 표현된 용어를 언어별로 구분하면 한글과 영어가 혼용되고 있다. 최근 정보 제공에 이용되는 주된 장비와 도구가 컴

퓨터와 웹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용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은 가능한 한글로 대체하고, 대체가 다소 어려운 경우에는 원어와 약어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되 풍선 및 박스 설명 등으로 처리하여 생소한 용어의 의미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④ 서브메뉴에 사용된 용어는 보다 정확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메인메뉴에 비하여 단어 수가 많고, 길이가 긴 용어가 다수 나타났다. 간단명료한 용어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웹에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고정된 컴퓨터 화면에 다양한 정보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보다 간단명료하고, 함축적인 용어개발이 요구된다.

⑤ 모든 메뉴에서 많은 용어로 사용된 분야를 대표적으로 하나만 살펴보면, 대출과 반납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총 40회로 나타난 대출과 반납은 25가지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너무 많은 형태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체계를 재조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우치수, 한혁수. 1994.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울. 영지문화사.

유재욱. 2000. “대학도서관의 웹기반 전자참고정보 서비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7(4): 171-86.

이지연. 2002.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원칙과 평가방법.” 『2002년도 춘계 정보관리강좌』, p.72.

최상기. 2000. “대학도서관 웹사이트 설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7(4): 137-55.

황화상. 2000. “컴퓨터 관련 번역 전문용어 연구.” 『전문용어연구』, 1: 113-131.

ACM Conference. 1998. “Usability Testing of World Wide Web Site.” SIGCHI WWW SIA:CHI 97.

<<http://www.acm.org/sigchi/web/chi97testing/ricknote.htm>>.[2002,08,01].

Aked, Michael. 2000. “Evaluating Websites.” <<http://www.cl.utoledo.edu/userhomes/maked/webevaluation.html>>.[2002,08,16].

Andy Large. 1991. “The User Interface to CD-ROM Databas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23(4): 213-232.

Ben Shneiderman, 1993. *Designing the user interface: Strategies for effective human-computer interaction*, Reading, Mass. :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박광식, 김형렬 역, 『웹시대의 인터페이스

- 디자인』. 서울. 길벗.
- C.I.S. 2002. 『Web 인터페이스 디자인 비주얼 가이드』. 서울. 영진닷컴.
- Eric Christerson & Donna Pontau. 1998. "Universal Design for Library Web Pages: Providing Access for Users with Disabilities." *San Jose State University Faculty Diversity Grant Project*. p.166.
- Head, Alison J. 1999. "Design Wise: A guide for evaluating the interface design of information resources." 박광식, 김형렬 역, 『웹시대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서울. 길벗.
- Head Alison J. "A Question of interface design : How do online service GUIs measure up?." <<http://www.onlineinc.com/online/mag/mayo197/head5.html>>. [1999,02,21].
- Jakob Nielsen, "Usability Testing of WWW Design." Sun Microsystems Web site. <<http://www.sun.com/sun-on-net/uidesign>>. [1999,02,19].
- Joseph S. Dumas 1988. Designing user interface softwa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p.69.
- Labeling system. <<http://www.hci.or.kr/research/ia/labelingsystem.html>>. [2002,08,27].
- Labeling system. <<http://lis.skku.ac.kr/ia/2000/chapter4/AnalysisPresentation/labelingsystem.html>>. [2002,08,27].
- Louis Rosenfeld & Peter Morville. 1999. *Information Architecture for the World Wide Web*. 김화수, 이소민 역.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서울. 한빛미디어.
- Miller G. A. 1956.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 Some limits on our capacity for processing information." *Psychological Review*, (63): 81-97.
- Site Map. <http://www.jeon1210.com/project/10__sitemap.html>. [2002,07,22].
- Site Navigation. <<http://cezio.new21.org>>. [2002,08,23].
- Swift, Donald F., 1979. "A Sociological Approach to the Design of a Information System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0: 215-223.
- Valenza, Joyce. 2000. "Evaluating Web Page: A WebQuest." <<http://mciu.org/~spjvweb/evalwebteach.html>>. [2002,07,22].
-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http://www.w3.org/>>. [2002,08,27].
- Web Disign. <<http://www.bonwebdesign.com/html/websitegujo.htm>>. [2002,09,01].